

정형외과학회 소식

Newsletter of 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동양고전산책 | 정형외과 질환별 팜플릿 발간 | 공지사항 | 2016년도 만례재단 해외 연수 장학생 선발 안내 | 개원의 연수강좌 | CIOS 공지사항 | CIOS 인용상 | 국문학회지편집위원회 공지 | 학회 지도전문의 자격 기준 중 지도전문의 적용 논문 접수 및 대상학회지 개정 | 관련학회 및 국내학술회 소식 | 교실 소식 | 국제학회 소식 | 회원 동정 | CONFERENCE | 고문변호사 칼럼 | 출간소식

회장 김성재 · 이사장 김기택 · 총무이사 정비오



5

2016 MAY vol.315



동양고전산책(東洋古典散策)

이춘기 (서울대학교)

西門豹投巫 (서문표투무, 서문표가 무당을 강물에 던지다.)

2

정형외과학회소식

서문표(西門豹)는 전국시대 위나라 문후(魏文侯: BC 446년~BC 396년 재위) 때의 뛰어난 지방 행정 관리였으며 지금도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관리이여서 서문표를 모시는 사당과 서문표가 2천5백년 전에 건설한 강의 물을 저장하는 보(西門渠, 서문거)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한다.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滑稽列傳)에 나오는 솔로몬왕의 지혜로운 판결 보다 더 멋진 서문표의 통쾌한 판결과 한비자(韓非子 外儲說 左下篇)에 나오는 서문표와 얹힌 인사평가의 핫점을 날카롭게 꼬집은 일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서문표는 위나라 업(鄆) 땅의 수령이 되어 부임하면서 그곳 장로들을 모아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바를 물었다. 장로가 “백성들은 하백(河伯, 강의 水神)에게 처녀를 바치는 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삼로(三老, 고대 중국의 지방 조직 鄉의 책임자)와 아전들이 하백에게 예쁜 처녀를 바치지 않으면 하백 신이 노해서 큰 홍수가 난다고 위협합니다. 그들은 처녀를 바치기 위해 가난한 집안의 딸을 골라 하백 신과의 혼사 준비를 하면서 백성들로부터 수 백만전의 돈을 거두어 그 가운데 일부만 행사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무당과 나누어 갖는데 이 때문에 백성들이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 때가 되면 무녀가 이 집 저 집으로 아름다운 처녀를 찾아다닙니다. 마침내 처녀가 발견되면 ‘이 처녀는 하백의 아내가 될 것이다’ 하고는 준비를 시작합니다. 처녀를 목욕시키고 아름답게 꾸미고 강가에 붉은 장막으로 둘러친 금단의 방을 만들어 처녀를 그 속에 가두어 놓고 십여 일이 지나 드디어 시집가는 날이 되면 곱게 꾸민 처녀를 가마에 태워 그대로 강물에 띄웁니다. 그러면 가마는 처음 얼마 동안 물에 떠 있지만 떠내려가는 동안 강물 속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무당이 자기의 딸을 하백의 아내로 데려갈 것을 두려워 멀리 도망을 가는 통에 성 안은 사람이 없어 텅 비게 되고 더욱 가난해졌습니다.“라는 것이었다. 서문표는 장로들에게 자신도 그 결혼식을 보고 싶으니 행사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마침내 하백의 결혼식 때가 되자 행사장에는 2~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10여명의 여제자를 거느린 70세의 무당 노파가 비단으로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타났다. 서문표가 말했다. “하백에게 시집보낼 처녀를 불러오시오. 내가 그녀의 용모를 좀 보려 하오.” 처녀를 데려오자 서문표가 “이 처녀는 별로 예쁘지 않군! 하백 신에게 이런 뜻 생긴 여자를 어찌 보내겠소. 수고스럽겠지만 무당 할멈이 하백에게 직접 가서 아름다운 처녀를 새로 구하여 며칠 내에 보내겠다고 말하고 오시오.” 하고는 군사를 시켜 무당을 들어 강물에 집어 던졌다. 얼마가 지나자 서문표가 말했다. “무당 할멈이 어찌 이리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가? 이번에는 제자가 들어가서 빨리 돌아오도록 재촉하라!” 하고는 제자 한 사람을 들어 다시 물속에 던져 넣었다. 그 후 이렇게 세 명의 무당 제자를 강에 던진 후, 다음에는 이렇게 말했다. “찾으러 간 사람들이 모두 여자여서 하백에게 고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이번에는 삼로가 수고해야겠다. 들어가서 하백에게 고하라!” 하고는 삼로도 물속에 던져 넣었다. 그는 삼로를 강물에 던져 버리고 옷깃을 가다듬고 강을 향해 경건하게 절을 하고 서서 기다린 지

한참이 지났다. 서문표 곁에 서 있던 장로나 아전들은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잠시 후 뒤돌아 선 서문표가 말했다. “도대체 무녀들과 삼로도 아직 돌아오지 않으니 어떻게 된 노릇이요?” 그렇게 말한 그는 아전과 고을 유지 두 사람에게 함께 마중을 가라고 재촉했다. 모두들 이마를 땅바닥에 비벼대며 목숨만 살려달라고 구걸했다.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얼굴은 흙빛으로 질려 있었다. “그럼 좋소. 잠시 기다려 주지.” 얼마 동안 시간이 흐른 뒤 서문표가 뒤돌아보며 말했다. “모두 일어나시오. 하백이 손님들을 잡아놓고 돌려보내지 않는 모양이오. 그대들은 이제 돌아가도 좋소.” 이 광경을 보고 업 지방의 아전들과 백성들은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였으며 누구도 감히 다시는 하백에게 아내를 바치자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됐다.

서문표는 미신 행사를 없앤 뒤 백성들을 대규모 공사에 동원해 12개의 수로를 파서 홍수를 조절하고 또 강의 물을 끌어들여 백성들의 논에 물을 댔다. 당시 백성들은 수로를 파는 일을 큰 공사라 생각하고 그 일을 싫어했다. 그 때 서문표가 말했다. “지금 당장은 백성들 누구나 나를 원망할 것이지만 그들의 자손들은 나의 업적을 생각할 것이다.” 그 후 서문표의 말처럼 업 지방은 현재 (사마천이 사기를 쓴 한무제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수리사업으로 홍수나 가뭄이 없이 농사가 잘 되어 그곳의 백성들은 늘 풍족하게 되었다.

이렇게 뛰어난 행정가인 서문표도 중앙 (위나라의 수도 대량 大梁)의 고관들의 부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서문표는 업의 수령이 되어 청렴, 결백과 성실로 털끝만한 개인의 이익도 얻으려 하지 않았고 또한 중앙에 있는 왕의 측근들에게 뇌물을 받치지 않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자 왕의 측근들은 한 패가 되어 서문표를 모함하려 했다. 서문표가 자기가 다스린 지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더니 위문후는 조정의 대신들과 함께 외지에 있는 관리들의 평가를 하고 있었다. 조정 대신들은 이구동성으로 서문표가 가장 무능하다고 하여 위문후는 지체 없이 서문표를 파직하려 했으나, 서문표는 이렇게 청원했다. “소신이 업 땅을 다스리는 법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알게 되었으니 다시 한 번 1년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업을 잘 통치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기대에 어긋난다면 어떤 극형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에 위문후는 크게 책망을 한 후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었다. 이후 서문표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고 그 돈으로 무엇보다 왕의 측근들에게 수시로 뇌물을 보내어 환심을 사는데 노력했다. 1년 후 다시 보고서를 올리자, 서문표는 이번에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놀란 위문후는 서문표가 위나라의 수도 대량에 오자 직접 마중을 나가 환영을 하였다. 서문표는 마중을 나온 위문후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부임 후 몇 년간 모든 백성들과 왕을 위해 힘껏 업을 통치했을 때에는 파면을 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은 백성들보다도 왕의 측근들을 위해 일하며 뇌물을 주었더니 제일 높은 평가를 받았고 왕께서는 저를 이렇게 극진히 환영해 주십니다. 이래가지고는 나라가 잘 될 수 없습니다.” 하고는 관인을 내놓고 물러서려고 하는데, 위문후는 그것을 받지 않고, “나는 이전의 그대를 잘 모르고 있었으나 이제 알게 되었다. 부디 나를 위해 계속 업을 통치해 주기 바란다.”고 사정을 했다.

삼국지의 영웅 조조(曹操, AD 155~220)는 서문표를 무척 존경했다고 한다. 조조는 각 지방에서 국가 공신들의 사당에 제사를 지낸다는 핑계로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는 행태를 보고는 공신들의 사당을 모조리 때려 부수고 제사를 폐지 시켰다. 죽을 때에는 업(鄆) 땅의 서문표 사당 서쪽 언덕 위의 척박한 땅에 금은보화를 넣지 말고 입는 옷 그대로 묻고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마지막 유언(遺令) 또는 終令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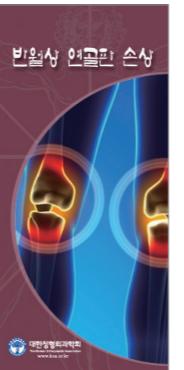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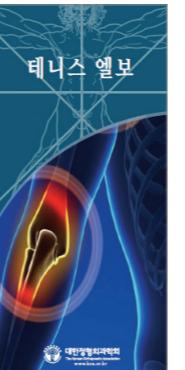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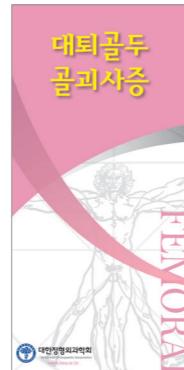
믿음 또는 종교란 결국 인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역사적으로 종교의 탈을 쓰고 자행되었던 수탈과 잔혹 행위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다. 고려 말 사찰의 수탈과, 중세 가톨릭 교회의 수탈과 잔혹한 마녀사냥, 십자군 전쟁부터 현재의 IS (Islamic State)의 잔혹 행위까지 모두 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이런 악행의 종교 지도자들을 서문표처럼 과감히 강물에 쳐 넣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정형외과학회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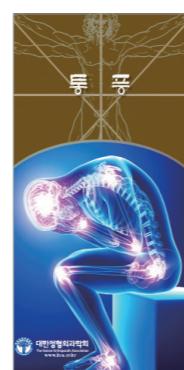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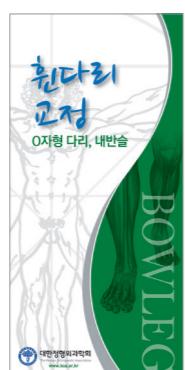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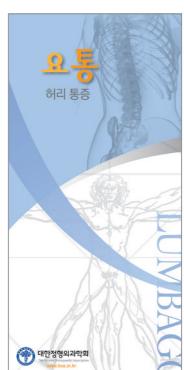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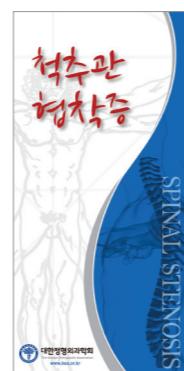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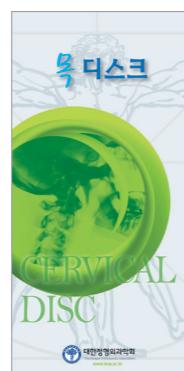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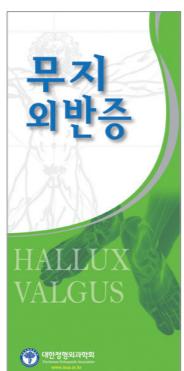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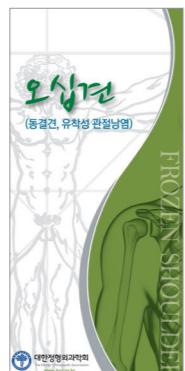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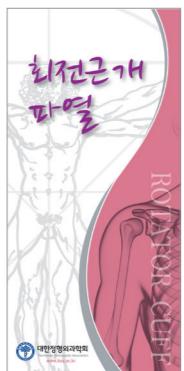


정형외과 질환별 팜플렛 발간



4

5



- 질환별 팜플렛 7종을 추가 제작(통풍, 발목염좌, 테니스엘보, 반월상 연골판 손상, 근골격계 초음파, 십자인대 파열, 어깨 인공관절수술)하였습니다.
- 질환별 팜플렛 신청은 회원께서는 아래 양식에 의거하여 학회 팩스(02-780-2767) 또는 이메일(ortho@koas.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은 질환별 100부당 15,000원입니다
- 송금계좌: 국민은행 269101-04-008077, 예금주: 대한정형외과학회

팜플렛 신청

- ◎ 신청자 성명: _____
 ◎ 병원명: _____
 ◎ 전화번호(핸드폰번호): _____
 ◎ 이메일: _____
 ◎ 주소: _____

◎ 병원명: _____
 ◎ 이메일: _____

질환명	신청 수	질환명	신청 수

위와 같이 신청함.



1. 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홈페이지 오픈

대한정형외과학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10월 19일(수)부터 22일(토)**까지 4일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국제학술대회로서의 명성에 걸맞은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회원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국가에서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술대회 관련 정보 확인은 물론 등록과 초록 접수가 가능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홈페이지 주소: <http://2016.koa.or.kr/>
- 참여 방법: ① 상단의 "Sign Up"을 클릭하여 기존 정형외과학회 홈페이지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 후 정형외과학회 회원 인증하기
② 회원 인증 후 "KOA 2016 Sign up" 클릭
③ 개인정보수집 동의와 개인 정보 기입 후 "Confirm" 클릭
④ 입력 정보 최종 확인 후 "Submit" 버튼 클릭

→ ID는 이메일 주소이며 기존 학회 홈페이지의 ID, PW와 혼동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초록 접수 안내

금년도 초록 접수는 아래 국제학술대회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로그인 하시어 초록 접수 바랍니다.

- 접수 기간: **현재 ~ 5월 30일(월)** 자정까지
- 접수 방법: 국제학술대회 홈페이지(<http://2016.koa.or.kr/>) 로그인 후 접수 가능
- 일정 안내:

	한글 구연	영어 구연	포스터	비디오
제출초록제한	4년차 전공의 수의 3배	(없음)	1저자 또는 통신 저자로 3 편까지	(없음)
5월 30일	초록 제출 마감	초록 제출 마감	초록 제출 마감	
7월 5일	심사 결과 통보	심사 결과 통보	심사 결과 통보	
7월 12일	발표 취소 기한*	발표 취소 기한*	발표 취소 기한*	발표 취소 기한*
9월 5일	완성논문 또는 확대된 초 록 제출**	완성논문 또는 확대된 초 록 제출**	(없음)	전시할 비디오 파일제출***
10월 5일	발표 슬라이드 제출	발표 슬라이드 제출	(없음)	(없음)

→ 초록 접수 후 등록 확인 메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록 수정은 로그인 후 상단의 My page에서 가능합니다.

3. 사회봉사세션을 위한 사례 추천요청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정형외과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회원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6년은 대한정형외과학회 창립6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따라서 금년 추계학술대회의 슬로건을 "함께한 60년 도약하는 100년"으로 정하고 국제학술대회로 개최할 예정이어서 많은 해외 연자들과 각국의 정형외과학회장님들을 초빙하여 비상하는 대한정형외과학회의 위상을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우리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원 여러분들은 환자 진료에 있어 항상 국민들 편에서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대한민국 의사들의 현신적인 활동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모두가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지난 60년간 우리 국민과 동고동락하면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재능 기부한 것을 알리고 이를 더욱 활성화 함으로써 국민들과 항상 함께하는 대한정형외과학회라는 인식을 고취하고자 이번 60주년 행사에 사회봉사 세션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회원님 본인의 활동은 물론 동료 회원님들의 사회봉사활동(국내 혹은 해외)에 대하여 학회에 알려주시면 이번 기회를 통해 널리 알리고 동료회원님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시간을 내주시어 학회 이메일(ortho@ko.or.kr) 혹은 전화(02-780-2765)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4. 발전기금 모금 안내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정형외과학의 발전을 위한 교육과 연구활동, 학회 회원들의 권익 증진과 대국민 봉사활동에 사용될 발전기금을 모금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와 중첩되는 진료과목간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회원 교육과 대정부 정책지원 등을 통하여 과거 정형외과의 영역을 확보하는데 집중 투자될 예정입니다.

■ 학회발전기금 후원자 세제 혜택

- 발전기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균가법령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영수증 발급)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발전기금 세제혜택 한도	
개인	소득금액의 30%(세액공제)

– 학회 발전기금 계좌: 국민은행 269101-04-099716 (예금주: 대한정형외과학회)

※ 발전기금 약정서

❖ 기부자 정보

귀하의 개인정보는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기부자 예우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근무처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근무처
휴 대 폰:	이 메 일: <input type="checkbox"/> 없 음
우편수령: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근무처

❖ 균무

약정금액 (합계): 원)

<input type="checkbox"/> 일시납:	년	월	일 납부		
<input type="checkbox"/> 분할납: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3개월 / 6개월 / 9개월 / 12개월) X		
<input type="checkbox"/> 정기납: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월 1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월 10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 납입방법

무통장 입금: 국민은행 269101-04-099716 (예금주: 대한정형외과학회)

*인터넷뱅킹으로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 기금의 용도

교육 및 연구 활동 회원 권리 증진 대국민 봉사활동 기타

본인(회원)은 대한정형외과학회 발전기금에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우편물 수령 동의함 기부내역 공개를 원치 않음

20 년 월 일 기부(약정)인 _____ (서명)

5. 학회 사무실 이전 안내

학회 사무국이 기존 여의도에서 서울역 근처로 이전합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분과 및 관련학회 회의 개최가 가능하오니 회의실 사용 문의는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 새 주소: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2-5 갑을빌딩 6층 (04334)



2016년도 만례재단 해외 연수 장학생 선발 안내

만례재단 해외 연수생 선발 공고 후 접수한 9명의 신청자를 2016년 4월 6일 만례재단 정기이사회에서 심사한 결과 가천의대 길병원 노영학 선생님을 선발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8

정형외과학회 소식



제23회 정형외과 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

- 일 시 : 2016년 6월 26일(일)
- 장 소 : 롯데호텔(소공동 소재) 사파이어홀 3F
- 평 점 : 연수교육 평점 6평점
- 등록비:

사전등록		현장등록	
회원 (전문의, 전공의, 군의관)	30,000원	회원 (전문의, 전공의, 군의관)	50,000원
비회원	70,000원	비회원	100,000원

* 일반의, 전공의 및 타과 선생님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 사전등록마감 : 2016년 6월 17일(금)
- 등록방법 : 국민은행 269101-04-008077, 예금주 대한정형외과학회
- 문 의: 대한정형외과학회 사무국 (☎ 02-780-2765)
- 주 최: 대 한 정 형 외 과 학 회
- 후 원: 대한정형외과개원의사회



제23차 정형외과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 프로그램

08:00-17:00 등 록
08:55-09:00 개회사 김성재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장
사회: 정비오 총무이사

시간	프로그램	주최
09:00-10:20	Session I : 도수치료 총론 김성재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장 김용훈 대한도수의학회 회장	
09:00-09:20	1 도수치료의 역사 및 치료법의 소개 이재환 연세재활의학과의원	
09:20-09:40	2 도수치료의 적응증, 금기 및 위험성 주상연 가톨릭의대	
09:40-10:00	3 도수치료를 이용한 자세교정 유승모 예산명지병원	
10:00-10:20	Discussion	
10:20-10:40	Coffee break	
10:40-12:00	Session II : 도수치료 각론 백구현 대한정형외과학회 차기이사장 이승원 대한도수의학회 학술부위원장	
10:40-10:55	4 경추 및 흉추의 도수치료 신민철 척본의원	
10:55-11:10	5 요추 및 골반의 도수치료 정대영 강남성모정형외과	
11:10-11:25	6 Extremity technique SOT 최문구 가톨릭정형외과의원	
11:25-11:40	7 하지의 도수치료 및 치료용 깔창의 적용 이승원 AK 클리닉	
11:40-12:00	Discussion	
12:00-13:00	Luncheon Symposium	
13:00-14:20	Session III: 근감소증, 골다공증 김기택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 김신윤 경북의대	
13:00-13:20	8 근감소증의 개요와 진단 박형무 종양의대 산부인과	
13:20-13:40	9 근감소증의 치료 임자영 서울의대 재활의학과	
13:40-14:00	10 Muscle and bone interaction: 근감소증과 골다공증 하용찬 종양의대	
14:00-14:20	Discussion	
14:20-14:40	Coffee break	
14:40-16:00	Session IV : 외래에서 초음파 활용하기 서정탁 대한정형외과학회 차기 회장 박태수 한양의대	
14:40-14:55	11 "Rotator cuff tear" 초음파 진단 후 보존요법 가능한 경우 및 방법은? 송현석 가톨릭의대	
14:55-15:10	12 "팔꿈치" 초음파, 꼭 필요한가? 김철홍 동아의대	
15:10-15:25	13 "요통" 치료, 초음파로 할 수 있다! 문상호 서울성심병원	
15:25-15:40	14 "족부" 초음파, 아직도 안보십니까? 이 강 경희의대	
15:40-16:00	Discussion	
16:00-17:20	Session V : 근골격 초음파 쉽게 하기 문성환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부회장 이광원 을지의대	
16:00-16:20	15 어깨 초음파 시연(20분) 정웅교 고려의대	
16:20-16:40	16 주관절, 수부 초음파 시연(20분) 윤형문 적십자병원	
16:40-17:00	17 족부 초음파 시연(20분) 강찬 충남의대	
17:00-17:20	Discussion	
17:20-17:25	폐회사 김기택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	

9

정형외과학회 소식

CiOS 공지사항

1. CiOS는 2017년 상반기에 SCI(E) 3차 등재 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학술진흥재단, SCOPUS, Medline Index 잡지입니다.
2. CiOS는 그 동안 문제가 된 심사진행을 빨리해서 6주~8주내에 심사, 게재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3. 현재(2016년 기준) 전공의 3년차부터는 전문의 시험자격 부여시 CiOS나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반드시 논문 한편게재가 필수요건입니다.
4. CiOS 편집위원님들께서는 종설, 원문, technical note 등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1년에 한편씩 원고 부탁드립니다.
5. CiOS는 국외 Editorial Board Member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업적이 출중한 분들을 분야별로(미국과 일본이외의), CV와 함께 추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 CiOS는 심사의 전문성, 지속성, 신속성, 공정성을 위해 국내 Editorial Board Member와 심사위원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편집에 관심있는 회원들은 CV와 함께 수시로 편집장 김신윤(syukim@knu.ac.kr)에게 지원서를 보내주시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편집위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참고로 CiOS 편집위원의 임기는 없으며 수시 교체 가능합니다. 심사위원으로 일정기간 봉사/ 평가 → 편집위원으로 일정기간 봉사/ 평가 → 분과책임 편집위원으로 일정기간 봉사/ 평가 → 부편집장으로 일정기간 봉사/ 평가 → 행정능력 등 종합평가 후 편집장 시스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7. 국내외 저명학자들의 review article이나 학회의 진료 및 치료 guideline 등의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 지원도 가능합니다.
8. 현재 우리나라 정형외과 학회회원들의 SCI(E) 등재 논문수는 약 700~750편 전후로 세계 4~5위에 해당합니다. 그간 CiOS에도 6년의 Archives가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가능합니다. SCI(E) 논문게재시 CiOS 논문 1편만 인용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9. 원고투여시 연구비 지원(병원, 의료 및 제약회사, 지자체, 정부, 법인)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원고투여시 개인 고유번호 등록인증제인 저자고유식별번호(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ORCID) 시스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ORCID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구자들의 고유 식별번호로 동명이인, 영문이름 표기의 다양화에 따른 저자 확인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CiOS에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님께서는 <http://orcid.org/>에 접속하셔서(Register now를 클릭) ORCID 번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ORCID는 CiOS 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학술지에서 도입하고 있으니 CiOS 투고와 상관없이 만들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CiOS 인용상

CiOS 인용상은 전년도 8월부터 해당년도 7월까지 CiOS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SCI(E) 잡지에 가장 많이 인용한 회원에게 수상합니다.

김신윤(CiOS 편집위원장)

국문학회지편집위원회 공지

1. 본 학회 국문학회지인 대한정형외과학회지가 한국연구재단(학진) 2013년도 학술지평가 결과 등재지 유통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국문학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심사받는 논문에 대해서 게재확정이후 저자변경은 불가함을 공지합니다.
3. 국문학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영문으로 작성 된 논문은 투고를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영문은 가급적 CiOS에 투고 부탁드립니다.

학회 지도전문의 자격 기준 중 지도전문의 적용 논문 점수 및 대상학회지 개정

개정 전 규정	개정 후 규정
<p>▣ 지도전문의 논문 점수 대상 학회지 및 배점</p> <p>1. 대한정형외과학회지 및 SCI(E) 논문(정형외과 관련학술지), 관련학회 학회지에 1점을 부여한다. 단, 제 1저자 또는 통신저자는 전체 점수를 주고 나머지 저자는 주어진 배점을 논문작성자 수로 나눈 점수를 부여한다.</p> <p>2. 정형외과영문학회지(CiOS) 및 척추외과영문학회지(Asian Spine Journal)는 2점을 부여하고, 관련학회 학술지는 학술지의 질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점수를 인정한다. 단, 제 1저자 또는 통신저자는 전체 점수를 주고, 나머지 저자는 주어진 배점을 논문 작성자 수로 나눈 점수를 부여한다.</p>	<p>▣ 지도전문의 논문 점수 대상 학회지 및 배점</p> <p>1. 대한정형외과학회지(통합된 골관절종양, 골연부직이식, 정형외과초음파, 정형외과컴퓨터수술 학회지포함) 및 정형외과영문학회지 (CiOS), SCI(E)는 2점을 부여하고, 관련학회 학술지는 학술지의 질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점수를 인정한다. 단, 제 1저자 또는 통신저자는 전체 점수를 주고, 나머지 저자는 주어진 배점을 논문 작성자 수로 나눈 점수를 부여한다.</p>
<p>3. 지도전문의는 당해 연도 1점 또는 직전 4년에 3점 이상의 논문 점수가 되어야 인정된다.</p> <p>* 직전 4년 논문 점수 산출시 이미 사용하였던 논문은 중복되게 사용하지 못한다.</p>	<p>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는 1점을 부여하며, 해당 학술지는 Hip and pelvis(구, 고관절학회지), 골절, 스포츠의학, 척추, 골관절종양, 족부족관절, 수부, 견주관절, 류마티스, JBM(구, 골대사학회지), 골다공증, Asian spine journal, Knee surgery and related research (구, 슬관절학회지)이다.</p>
<p>4. 정형외과와 관련된 전문 서적 집필도 수련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점수를 줄 수 있다.</p> <p>① 통신저자, 제1저자는 각각의 점수를 인정함</p> <p>② 공동저자는 1점 ÷ 전체 논문작성자 수</p> <p>③ 관련학회 학회지란 17개학회지이며 그 외의 학회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기로 함.</p> <p>* 17개 관련학회지: 고관절, 슬관절, 골절, 스포츠의학, 척추(국문영문), 골관절종양, 족부족관절, 수부, 견주관절, 미세수술, 관절경, 정형외과연구, 정형외과스포츠의학, 골연부조직이식, JBM(구, 골대사학회지), 류마티스, 정형외과초음파</p> <p>* 당해 연도란 매년 3월 1일~2월말까지를 말한다.</p>	<p>2) 기타 관련 및 분과학회지는 0.5점을 부여하며, 해당 학술지는 미세수술, 관절경, 정형외과연구, 정형외과스포츠의학, 골연부조직이식, 정형외과초음파, 정형통증의학회, 척추신기술학회, AOSM (대한관절경-대정스포츠의학회 통합영문학회지) 학회지이다.</p> <p>(기타 관련 및 분과 학회지가 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가 될 경우 1점을 인정한다)</p>
<p>◎ 2016년도 당해 연도:</p> <p>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p> <p>◎ 2016년도 직전 4년:</p> <p>2012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p>	<p>3) 지도전문의는 당해 연도 1점 또는 직전 4년에 3점 이상의 논문 점수가 되어야 인정된다.</p> <p>(1) 직전 4년 논문 점수 산출시 이미 사용하였던 논문은 중복되게 사용하지 못한다.</p> <p>(2) 당해 연도란 전년도 3월1일~해당 연도 2월말까지를 말한다.</p> <p>◎ 2016년도 당해 연도:</p> <p>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말까지</p> <p>◎ 2016년도 직전 4년:</p> <p>2012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말까지</p>
	<p>◎ 2014년 3월 1일 이전 논문은 개정 전 점수를 적용하고 3월 1일부터 발간된 논문은 개정된 논문 점수를 적용한다.</p> <p>2. 대한정형외과학회지 및 대한정형외과 영문 학회지(CiOS), SCI(E)는 당해 연도 기간 내에 채택(accepted) 되거나 E-pub된 경우, 논문으로 인정한다.</p> <p>3. 정형외과와 관련된 전문 서적 및 기타 학회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p>

* 2014년 3월 1일 이전 논문은 개정 전 점수를 적용하고 3월 1일부터 발간된 논문은 개정된 논문 점수를 적용한다.
예) 'The Journal of Bone and Joint-Am(SCI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 중 2014년 3월 1일 이전 발간된 논문은 1점, 2014년 3월 1일부터 발간된 논문은 2점.

☞ 위 규정은 2015년도 제2차 수련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 2016년에 있을 전공의 실태조사(서류심사 및 방문심사)에서 위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오니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 통합 학회지의 논문 점수 인정에 관한 건

[JKOA와 통합 전 발간] 골관절종양학회지 1점, 골연부조직이식학회지, 정형외과초음파학회지 0.5점

[JKOA와 통합 후 발간] 대한정형외과학회지와 동일한 점수로 인정



관련학회 및 국내학술회 소식

1. 제5회 대한운동계줄기세포재생의학회 춘계학술대회

- 일 시 : 2016년 5월 8일(일) 08:00~18:00
- 장 소 :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1층 대강당
- 평 점 : 6점
- 문 의 : 사무국 비서 박순영
H.P. 010-8941-3616
E-mail. info@ksrl.org
- 사전등록기간 : 2016년 5월 4일(수)까지 (마감 이후 사전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2. 대한관절경학회 제4회 관절경 수술 심포지엄 Current update in Arthroscopic surgery

- 일 시 : 2016년 5월 29일(일) 09:00~17:00
- 장 소 :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 및 소강당
- 사전등록
 - 마감일 : 2016년 5월 22일(일)까지
 - 방 법 : 학회홈페이지(www.korarthro.com) 배너를 통해 온라인 접수
- 평 점 : 6점
- 문 의 : 대한관절경학회
Tel. 02-3010-8632, Fax. 02-6919-2444
E-mail. korarthro@naver.com

3.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 제11차 춘계학술대회 및 제12차 근골격 초음파 미니워크샵 (Basic course)

- 일 시 : 2016년 6월 19일(일) 09:00~17:40
- 장 소 : 광주 빛고을 전남대학교병원 2층 대강당
- 평 점 : 연수평점 6점, 근골격 초음파 평점 50점
- 학술대회 사전등록 마감 : 6월 7일(화)
- 문의 및 연락처(학회사무국) : 을지의대 을지병원 정형외과 김란영
Tel. 02-970-8036, H.P. 010-8676-1187, Fax. 02-973-3024
E-mail. ossonokorea@naver.com
학회홈페이지: www.ossono.or.kr

4. 제24차 대한견·주관절학회 춘계학술대회

- 일 자 : 2016년 7월 9일(토)
- 장 소 : 세종컨벤션 힐(세종대학교 광개토관)



교실 소식

1. 제3회 고려대학교 정형외과 주관절(Elbow) 심포지움 (KUES)

- 일 시 : 2016년 5월 22일(일) 09:00~17:00
- 장 소 : 서울시 구로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의생명연구센터 1층 대강당
- 평 점 : 대한의사협회 5점
- 문 의 : 구로병원 정형외과 비서 이혜영
E-mail. benutzen@naver.com
Tel. 02-2626-1163

2. Yonsei Hand & Upper Extremity Cadaver Workshop

- 일 시 : 2016년 5월 22일(일) 오전 8:30~오후 6:00
- 장 소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수술해부교육센터
- 문 의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임상연구조교수 오원택
Tel. 02-2228-2180
H.P. 010-9958-5724
E-mail. owont82@gmail.com

3. 제7회 건국족부족관절코스 (7th Konkuk Foot and Ankle Course)

- 일 시 : 2016년 6월 19일(일) 오전 8시 30분~오후 6시 (등록은 오전 8시부터)
- 장 소 : 건국대학교병원 지하 3층 대강당 (서울 광진구 화양동) (지하철 2, 7호선 건대입구 역)
- 연수평점 : 대한의사협회6점
- 사전등록 : 8만원 (전공의/군의관/트레이너/기타 6만원)
- 현장등록 : 10만원 (전공의/군의관/트레이너/기타 8만원)
중식 및 교재 포함 (사전등록: 2016년 6월 15일 수요일까지)
- 문의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4-12, 건국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담당자: 용나영 (비서)
Tel. 02-2030-7360
H.P. 010-4807-7623
Fax. 02-2030-7369
E-mail. konkukfoot@hanmail.net

•프로그램 Sessions

1. Overuse injuries and Others
2. Overview of sports Injuries from Various Perspectives
3. Ankle joint and ligament Injuries (I)
4. Ankle joint and ligament Injuries (II)
5. Achilles Tendon and Plantar Fasciitis
6. Panel Discussions of Sports injury Cases



4. 2016년 경희 슬관절 Knee Symposium 안내 (강동경희대병원 10주년 기념 슬관절 심포지움)

- 일 시 : 2016년 7월 2일(토)
- 장 소 : 경희대학교 종합강의동(청운관) B117
- 주 관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 주최 : 대한슬관절학회
- 문의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비서 강정원
Tel. 02-440-7497
E-mail. marsia78@empal.com

5. 2016 Asan Meniscus & Osteotomy Symposium

- 일 시 : 2016년 7월 3일(일) 오전 8시 55분~오후 6시
- 장 소 :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
- 연수평점 : 6점
- 참가비용
 - 사전등록기간 : 2016년 6월 25일(토)까지
 - 비용 : 사전등록 5만원 / 현장등록 6만원 (군의관, 전공의 및 간호사 : 사전등록 4만원 / 현장등록 5만원)
 - 등록하신 분에게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 문의 : Tel. 02-3010-3530/3536
Fax. 02-488-7877
E-mail. hjalee@amc.seoul.kr

국제학술대회

1. 제13회 세계견주관절학회

- 기간 : 2016년 5월 18일(수)~20일(금)
- 장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 JEJU)
- 웹주소 : <http://www.icses2016.org/>

2. The 5th Asia Hip Arthroscopy & Joint Preservation Symposium

- 기간 : 2016년 7월 29일(금)~30일(토)
- 장소 : 중앙대학교병원 세미나 풀
- 웹주소 : <http://www.kossm.or.kr>

3. 17th EFORT Congress

- 기간 : 2016년 6월 1일(수)~3일(금)
- 장소 : Palexpo Geneva in Geneva, Switzerland
- 웹주소 : <https://www.efort.org/>

4. 2016 APKASS Congress and 13th IFOSMA

- 기간 : 2016년 6월 9일(목)~12일(일)
- 장소 : Prince of Wales Hospital in Shatin, Hong Kong
- 웹주소 : <http://www.apkass.org/2016congress>

5. XXI FESSH SANTANDER 2016

- 기간 : 2016년 6월 22일(수)~25일(토)
- 장소 : Santander Exhibition Centre, SPAIN
- 웹주소 : <http://www.fessh2016.com/>

6. Foot International 2016 Congress

- 기간 : 2016년 6월 23일(목)~25일(토)
- 장소 : Urania in Berlin, Germany
- 웹주소 : <http://foot-international-2016.org/>

회원 동정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장익열 자문위원 별세
2.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문위원 모친상
3. 이자용 (광주21세기병원) 회원 부친상
4. 김용민 (충북의대) 회원 부친상
5. 김지완 (인제의대) 회원 모친상
6. 김근호 (목포기독병원) 회원 부친상
7. 전용현 회원 부친상



CONFERENCE

1. Intercollegiate X-ray Conference 일정

년도	개최월일	병원명	개최월일	병원명
2016	5월 12일	상계백병원	6월 9일	서울대학교병원
	7월 14일	한국원자력의학원	9월 8일	국립경찰병원
	11월 10일	일산동국대병원	12월 8일	서울백병원
2017	2월 9일	서울대보라매병원	3월 9일	건국대병원
	5월 11일	서울의료원	6월 8일	순천향대학교병원
	7월 13일	국립중앙의료원	9월 14일	한전병원
	11월 9일	고대구로병원	12월 14일	삼성서울병원
2018	2월 8일	중앙대학교병원	3월 8일	서울성모병원
	5월 10일	경희대학교병원		

(매월 둘째 목요일 저녁 6:00) (1, 4, 8, 10월 없음)

•연락처 : Tel : 02-2072-2367~2368, E-mail : yoowj@snu.ac.kr

2. Interhospital Orthopaedic Conference (매월 첫째 수요일 18:30) (3, 5, 7, 9, 11월 매년 5회 개최)

년도	날짜	횟수	병원명
2016	5월 4일	제 118차	아주대학교병원
	7월 6일	제 119차	차의과대학 분당차병원
	9월 7일	제 120차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11월 2일	제 121차	세란병원
2017	3월 8일	제 122차	광명성애병원
	5월 10일	제 123차	이화여자대학교 복동병원
	7월 5일	제 124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9월 6일	제 125차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11월 1일	제 126차	연세사랑병원
2018	3월 7일	제 127차	세란병원
	5월 2일	제 128차	아주대학교병원
	7월 4일	제 129차	차의과대학 분당차병원
	9월 5일	제 130차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11월 7일	제 131차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 사정상 변경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Tel : 02-2228-2180~2181, E-mail : os@yuhs.ac, 담당 : 송미현

고문변호사 칼럼

고문변호사칼럼은 정형외과와 관련한 의료소송 사례들과 의료 법률상식 등을 알기 쉽게 제재하고 있어 회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의료법률에 관한 궁금사항을 남겨주시면 고문변호사의 칼럼을 통해 조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검사, 진단 및 처치와 기록

이정선 (법률사무소 건우)

유리컵 등에 손을 다쳐 병원에 들러 치료를 받았지만 예후가 좋지 않아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오늘은 이런 사례가 판결로 선고된 예가 있어 소개한다.

[사건개요]

환자는 2011년 4월 25일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유리컵을 깨뜨려 우측 손등에 열상을 입고, 3일 후 A정형외과에 내원하여 4주간의 수술을 동반한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열상, 제4신전건 파열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검사를 받고 항생제 투여·파상풍 예방주사 접종과 단상지 부목 고정 등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었다. 그런데 2011년 5월 16일 우측 수지 부분의 심한 염증으로 B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날과 같은 달 27일 2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오른손 4번째 손가락을 절단하고, 3번째 손가락도 근위지관절, 수장수지관절의 영구적 운동제한이 발생하였다. 환자는 A병원 의사가 상처 악화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보다 전문적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지도 않은 의료상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도 일반 불법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먼저 환자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후 A병원 의사가 보존적 치료만 시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① 의사가 시행한 검사와 처치는 정형외과 1차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진료에 상응하는 의료행위이고, ② 환자가 병원을 처음 내원한 날 발급한 진단서의 향후 치료의견란에는 '내원 당시 우측 수부에 심한 염증으로 인해 염증 치료 후 건봉합술 또는 건이식술 요함. 수술 후 약 4주간의 부목고정 요하며 심한 염증으로 인해 타수지 신전건에 유착 가능이 있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진료 당시 건봉합술 또는 건이식술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지만 2차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을 것을 환자에게 권유하고 감염에 대비한 항생제 투여 등 수술을 위한 사전적 조치만 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병원 의사의 의료행위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환자가 의사의 권유를 따르지 않아 치료시기를 놓침으로써 상해가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환자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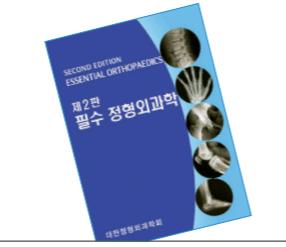
환자가 병원에 들어갈 때 서서 들어갔는데, 누워서 나온다고 과실이 모두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대한 충실히 검사와 그에 따른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긴다면, 얼마든지 의료과실의 명에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형외과 영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병원과실이 인정되는 예는 많지 않다는 점도 참고할만하다.

출간소식

1. 제2판 필수정형외과학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필수정형외과학 개정판(제2판)을 출간하였습니다. 2007년 제1판 출간 이후 빠르게 발전하는 정형외과학의 최신지견과 치료방법들을 수록하여 정형외과에서 반드시 습득해야 할 의학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였습니다. 정형외과를 널리 소개하고 기본적인 정형외과학의 지식을 전달하는데 충분한 교과서로서 의과대학 학생, 일반의사, 기타의료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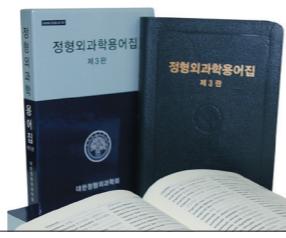
- 가격 : 60,000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03-01-0571-043
- 구입은 최신의학사(Tel : 02-2263-4723)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 정형외과학 용어집 제3판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훌륭하신 여러 선배회원님들의 노고로 1989년 10월 정형외과학용어집 제1판이 발간. 1997년 10월 제2판이 발간된 후 10년여의 세월이 흘러 거의 사용치 않는 용어도 생겨나고 정형외과학의 발달로 수많은 새로운 용어의 탄생으로 용어집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 2판에 누락된 용어 및 새로이 탄생한 용어의 보완과 사용치 않는 용어(폐어)를 삭제하고 일본식 용어도 우리말 용어로 개정하여 출간하였습니다.

- 가격 : 50,000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269101-04-008077 (예금주 : 대한정형외과학회)



3. 「장해판정기준」- 사지및척추분야- 개정판발간

장해판정을 하는 정형외과학회 회원뿐만 아니라 장해판정을 필요로 하는 다른 과의 의사 선생님은 물론, 사회에서 배상 및 보상분야에 종사하시는 분과 법조계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통용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의 회의와 워크샵에서의 토론을 통해 2005년 초판 이후 첫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가격 : 회원 15,000원/ 비회원 30,000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269101-04-008077 (예금주 : 대한정형외과학회)



4. 골-연부종양 치료지침(Treatment of Bone and Soft Tissue Tumors)

30년간의 골-연부 종양을 치료하면서 겪은 임상 경험과 최신 지견을 바탕으로 '골-연부종양 치료지침'을 집필하였습니다. 이 책은 골-연부종양의 진단부터 치료와 추시과정까지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어 종양을 전공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평소 종양에 관심이 많은 일반 정형외과 의사들도 참고할 수 있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저자 : 이수용
- 가격 : 비매품, 무가(발송료 본인 부담)
- 연락처 : 원자력병원 정형외과 의국(Tel : 02-970-2176, chowanda@naver.com)

신한은행(110-165-197845 조원형)으로 5천원 입금하시고 매일 주시면 주소지로 배송해 드립니다.



5. 정형외과학 7판 발간

- 구입 : 최신의학사(Tel : 02-2263-4723)
- 가격 : 300,000원대

※새로 개정된 정형외과학 7판 내용 중 일부 수정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오표를 공지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Page	구조문	신조문
89	그 외 등종골이식, 골수 이식 및 세포이식 등이 있다.	그 외 자가 골수 이식 및 자가 세포 이식 등이 있다.
89	골원세포	골조상세포
89	골대체물로는 수산화 인회석(hydroxyapatite), 인산칼슘(calcium phosphate), 카본산칼슘(calcium carbonate), 황산칼슘(calcium sulfate) 등이 대표적이다.	골대체물로는 인산칼슘(calcium phosphate), 카본산칼슘(calcium carbonate), 황산칼슘(calcium sulfate) 등이 대표적이다.
90	골 전도능력은 좋으나, 초기의 구조적인 강도를 유지할 수 없고, 골유도 능력이 없으며, 이를보충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골 전도능력은 좋으나, 초기의 구조적인 강도를 유지할 수 없고, 골유도 능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90	제1형 교원질은 골전도가 용이할 수 있는 틀(scaffold)을 제공하여 골형성을 촉진시킨다.	제1형 교원질은 골전도가 용이할 수 있는 틀(scaffold)을 제공하여 골전도에 도움을 준다.
90	bone morphogenic protein	bone morphogenetic protein



한국형 소염진통제 펠루비정

한국의료진에 의해서 연구개발된 국내신약
“한국형 골관절염·요통 치료제” 펠루비® 정

*Celecoxib와 Aceclofenac제제와의 국내 다기관 비교 임상 시험을 통해
Pelubiprofen의 우수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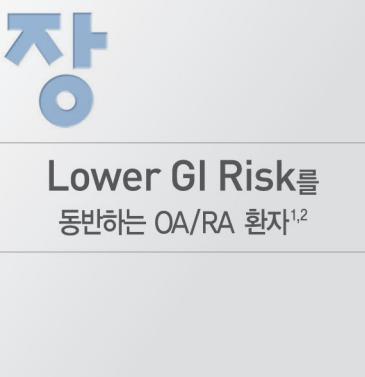
*Prodrug 형태로 위장관 부작용이 적은
안전한 NSAID입니다.



Upper GI Risk 를 동반하는 OA/RA 환자^{1,2}



아스피린+클로피도그렐과 병용이 필요한 OA/RA 환자³



위 : Upper GI Risk를 동반한^{1,2}

장 : Lower GI Risk를 동반한^{1,2}

병 : 아스피린+클로피도그렐과 **병용**이 필요한³

60세 이상의 OA/RA 관절염 환자에게

써레브렉스로 시작하세요!⁴

GI: Gastrointestinal, OA: Osteoarthritis, RA: Rheumatoid Arthritis

References: 1. Chan FKL, Lanas A, Scheiman J, Berger MF, Nguyen H, Goldstein JL. Celecoxib versus omeprazole and diclofenac in patients with osteoarthritis and rheumatoid arthritis (CONDOR): a randomised trial. *Lancet*. 2010;376:173-79. 2. Cryer B, Li C, Simon LS, Singh G, Stillman MJ and Berger MF. GI-REASONS: A Novel 6-month, Prospective, Randomized, Open Label, Blinded Endpoint (PROBE) Trial. *The Americ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2013;108:392-400. 3. Lee WJ, Wu JY, Yang HM, et al. Celecoxib Does Not Attenuate the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Symptom Score in Patients with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Journal of Clinical Gastroenterology*. 2013;47:271-75.

Select CELEBREX